

중국 경제를 이끄는 제3의 성장극(成長極), 텐진 반하이신구 개발프로젝트 추진과 시사점

이순자(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흠(국토연구원 연구원)

- 중국의 경제개발정책이 동남부 연해지역에 치중되면서 주강삼각주지역이나 장강삼각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이 경제성장에서 뒤처지자, 중국정부는 텐진 반하이신구를 중국 경제발전의 세 번째 거점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있음
- 중국 개혁·개방을 위한 국가급 시험개발신구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반하이신구는 앞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신흥산업육성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새만금 등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할 대형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시사점 >>>

-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복합 형태의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이때 개별사업들이 산업으로, 산업들이 군집으로, 군집들이 단지로 성장함으로써 전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산업육성계획과 토지이용 및 공간배치계획과의 연계·통합이 필요
-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 지역 산업발전을 선도할 앵커기업 및 빅프로젝트의 초기 유치와 다양한 지원 등 공공에 의한 적극적인 선도 역할이 필요
- 국내 또는 초국경 지역들과의 협력 및 경쟁을 위해서는 주변지역들과의 산업기능 조정 및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우리만의 경쟁우위 업종을 발굴·선택하여 집중 개발할 필요
-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관점에서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
- 원스톱 및 단일기관에 의해 신속·정확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심사·처리, 자문, 편의서비스 제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지원기관 운영이 필요
-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정책, 유치업종 분류 등에 있어서 다양화 방안 마련 및 규정 등의 융통성 있는 적용 등 유연한 대처 필요

1.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신흥산업기지, 텐진 빈하이신구

- 동북아지역에서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환황해권이 초국경 경제통합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 서해안, 중국 동부연안지역, 일본 규슈를 포함하는 환황해권의 면적은 79만 7,134km²로 세계 면적의 0.5%, 한·중·일 면적의 8.0%에 불과
- 그러나 인구는 약 4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6.3%, 한·중·일 인구의 26.8%를 차지하고, GDP도 3,615조 원으로 세계 GDP의 4%, 한·중·일 총 GDP의 29.4%를 담당

[그림 1] 중국 3대 경제권과 빈하이신구 위치



- 중국의 성장은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정책이 결정된 후, 거점개발전략에 따라 연해지역 항구도시들을 개발하면서 가속화
 - 광저우~선전~홍콩 중심의 주강삼각주지역, 상하이~난징~항저우 중심의 장강삼각주지역, 베이징~텐진~탕산지역이 중국 경제발전을 선도한 대표적인 거점들임
- 1980년대 주강삼각주지역에 광둥 선전경제특구(深圳经济特区) 설치로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실험은 주요 항구도시들을 따라 북상하면서 1990년대 장강삼각주지역의 상하이 푸둥신구(浦东新区), 2000년대 텐진 빈하이신구(滨海新区)로 확산·발전
 - 덩샤오핑(鄧小平) 개혁·개방의 상징이 선전이고, 장쩌민(江澤民) 시대 고도성장의 결실이 푸둥이라면, 후진타오(胡錦濤) 중심의 중국정부는 빈하이신구 개발에 주력
- 선전 및 푸둥과 함께 신흥산업기지 빈하이신구를 중심으로 환발해경제권이 태동함으로써 연해지역 3개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주강삼각주지역은 외자유치로 중국 개혁·개방을 선도하고, 장강삼각주지역은 중국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며, 환발해만지역은 동북부지역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

2. 텐진 빈하이신구 개발의 추진배경과 경위

- 중국정부는 환발해만지역의 상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주강삼각주지역 및 장강삼각주지역과 함께 중국 3대 경제권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발표

- 이에 힘입어 중국 경제발전의 거점이 주강경제권과 장강경제권에 이어 점차 환발해경제권으로 이동 중임

- 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 랴오닝성, 산둥성의 5개 성·시를 포함하는 환발해만지역의 면적은 전국대비 5.4%에 불과하나, 인구 17.5%, GRDP 26.2%(중국 GDP총액 대비), 대외교역 21.9%, 외국인직접투자 38.9%, 소비총액 24.3%를 차지하면서 거대경제권을 형성
- 5개 성·시의 GDP 증가율도 모두 10%대로 높은 수준이며, 2·3차산업 의존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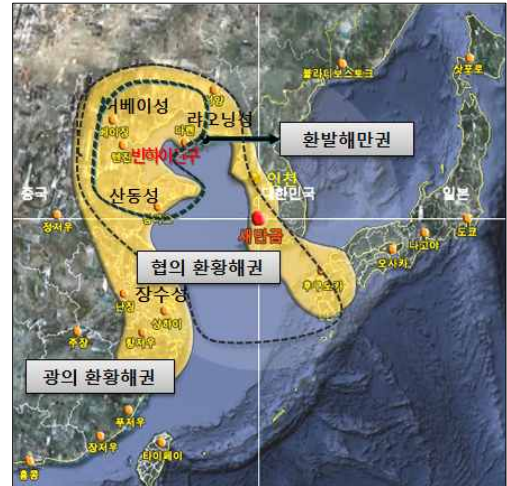
- 환발해만지역 개발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를 포함하는 징진지지역(京津冀) 개발이 핵심이며, 징진지 중에서도 한국 및 일본과 경쟁하는 환황해권에서 산업과 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특히 텐진 빈하이신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함

- 중국경제의 또 다른 축인 징진지지역 내에는 선전이나 푸둥처럼 지역 내 경제성장을 동인할 핵심지역이 없는 데다, 이 자리를 놓고 베이징과 텐진 간 과도경쟁으로 오히려 지역 간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어려움
- 중국정부는 선전과 푸둥에 이어 빈하이신구에 중국 경제를 이끄는 제3극의 지위를 부여하고, 징진지지역 발전을 선도할 국가급 프로젝트로 개발하기로 함
- 빈하이신구 개발은 궁극적으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수도권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토대로 인접한 동북부지역과 중서부내륙지역으로 경제효과를 파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

- 2009년 11월, 텐진시가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탕구(湯沽), 한구(漢沽), 따강(大港)의 3개 행정구역을 재편성하여 빈하이신구 행정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 제11차 5개년계획에 이어 제12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十二五規劃, 2011~2015)에서도 빈하이신구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신흥산업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포함

[그림 2] 환발해만지역의 공간적 범위



3. 빈하이신구 개발전략과 추진현황

● 입지특성 및 발전잠재력

- 국가급 개발프로젝트인 빈하이신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존 탕구, 한구, 따강의 3개 행정구역과 텐진경제기술개발구, 텐진보세구역, 텐진항구역, 동리구와 진난구 일부를 포함
- 빈하이신구 개발면적은 2,270km²으로 텐진시의 19.0%를, 인구는 약 248만 명(2010년 현재)으로 텐진시의 19.2%를 차지(서울시의 3.8배 및 새만금의 5.7배에 이르는 면적임)
- 빈하이신구는 독특한 행정구역상 우위, 풍부한 자원, 편리한 교통망,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능 보유, 튼튼한 제조업 기반 등 충분한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임
 - 융·복합 신흥산업기지: 항구, 개발구, 보호구, 대형공업기지 등이 하나로 묶여 개발되는 곳으로서 제조, 유통, 물류 등 산업사슬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가능
 - 풍부한 자원: 황무지, 염전, 저생산성 농지 등 약 1,200km²에 달하는 유휴 토지자원으로 토지 부족현상에 비교적 자유롭고, 발해만 유전 등 천연자원으로 산업발전에 유리
 - 편리한 교통망: 대규모 항공화물기지를 보유한 텐진빈하이국제공항,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계획의 최초구간이자 여객전용고속철도망 시험프로젝트로서 직통소요시간은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한 117km의 베이징~텐진 고속철도, 매년 17% 증가로 2010년 현재 연간 물동량이 1,150TEU에 이르는 텐진항 등을 갖추고 있음
 - 과학기술 연구·개발기능 보유: 국가줄기세포연구센터, 국가나노기술연구센터 등 40여 개의 과학연구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모토로라 등 대기업 연구센터 등 유치
 - 튼튼한 제조업 기반: 석유·화학, 전자·정보통신, 기계·제조 등 비교우위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도 촉진되고 있음

● ‘전략적 10대 중점기능구역’의 개발

- 개발과정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개발공간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10개 중점기능구역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
 - 중점기능구역은 빈하이신구핵심구역, 비즈니스센터구, 동장세금보호구, 서부구역, 베이탕경제구, 중신·텐진생태성, 빈하이관광구, 중심어항, 임항경제구, 남항구역으로 구성

- 중점기능구역 개발사업에 약 1조 5천억 위안이 투자되며,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인 2015년까지 핵심구역, 둥장세금보호구, 베이탕경제구, 서부구역, 중심어항의 5개 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개발도 개략적으로 완료할 예정

【표 1】 전략적 10대 중점기능구역별 주요 개발사업

구분		계획면적	주요 조성시설 및 기업 유치분야
빈하이신구 핵심구역		7km ²	도시 및 환경정비를 통해 현대적인 신도시구역 조성, 현대적 서비스산업구 건설, 현대적 광장, 주점거리 등 조성
비즈니스 센터구	위자바오 금융구	3.9km ²	금융기구, 재산권거래, 첨단비즈니스, 기업본부, 연구개발센터, 데이터 처리센터
	상뤄완 비즈니스구	3.2km ²	기업본부, 연구개발센터, 현대적 서비스업
둥장세금보호구		30km ²	컨테이너정기선회사, 첨단설비제조, 개방형생산가공, 물류 및 국제적 구매, 국제배송 등의 산업
서부 구역	개발구서구	48km ²	전자정보, 자동차, 신에너지, 장비제조, 의약바이오
	공항경제구	55km ²	항공, IT, 기계제조, 의약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서비스아웃소싱, 기업본부, 비즈니스무역, 금융서비스
	뤄룽후경제구	30km ²	신에너지, 신소재, 의약바이오, 전자·정보, 국방과학기술,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기관, 현대적 서비스업
베이탕경제구		30km ²	기업본부, 금융보험, 전문자문, 중개서비스, 문화창의산업, 물류관리, 무역판매, 과학기술 연구·개발, 건축설계, 첨단비즈니스
중신·텐진생태성		30km ²	생태친환경제품 및 기술, 문화창의산업, 금융서비스, 서비스아웃소싱, 교육 및 인재양성, 생태관광
빈하이관광구		99km ²	테마공원 및 관광항, 휴양사업본부, 관광가공제조업, 연구·개발 전환사업 및 거주·생활공간, 비즈니스무역서비스
중심어항		18km ²	대형원양어회통합합업체, 대형수산가공업체, 수산물국제무역업체, 유람선제조업체
임항경제구		405km ²	해양사업, 조선, 장비제조, 해양운수 및 물류, 식량·식용유종합가공
남항 구역	남항공업구	200km ²	석유화학공업산업, 현대적 항만물류
	방직직경제구	26km ²	방직공업, 전자·자동차부품, 신형건축재료

● 빈하이신구의 중점육성산업

- 중국 동부연해의 도시 간 2차산업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2차산업의 각 업종마다 산업가치사슬의 수준이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남
 -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닌 빈하이신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 연구·개발, 생산, 상품화, 유통, 수출 등 산업가치사슬 단계의 확장이 필요
- 빈하이신구를 포함한 동부연해지역의 경우 3차산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다만, 빈하이신구는 텐진 경제를 뒷받침하는 신기능구로서 첨단기술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금융개혁실시구로서 환발해만권 3차산업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교통운수, 저장·수송, 도·소매 등 전통적인 3차산업 비중이 높으나, 최근에는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 비중도 점차 증가 추세
- 빈하이신구 개발계획에서는 지역의 잠재력과 중국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신흥산업기지로써의 역할을 고려하여 중점육성산업을 제시
 - 선정된 중점육성산업은 ① 금융, ② 물류, ③ 석유·화학, ④ 장비·제조, ⑤ 항공, ⑥ 전자·정보, ⑦ 의약바이오, ⑧ 신소재·신에너지임
- 빈하이신구 중점육성산업 발전전략은 “대형프로젝트, 대형산업집적, 대형산업망, 그리고 대형시장망”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특히 앵커 대기업과 대형프로젝트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도모

● 빈하이신구의 투자유치전략

- 개발초기부터 텐진시 산하에 ‘텐진시정부 빈하이신구 관리위원회(天津市政府濱海新區管理委員會)’가 발족되어 빈하이신구 개발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
 - 관리위원회는 빈하이신구 경제사회발전계획 마련, 텐진시를 대표하여 빈하이신구 각 기능구역 발전계획 비준, 건설재원 관리, 텐진시와 빈하이신구 간 업무 조정, 대외업무 관리, 기타 텐진시 요청업무 등을 수행
- 빈하이신구 투자유치전략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항만 우위를 이용하여 북방국제항운센터를 육성: 북부국제항운센터건설전문자금을 설치하여 컨테이너물류망 구축 및 항운산업과 항운전시과학연구자원 집중 유치
 - 기업체 에너지소비량 감축 장려: 에너지전문자금을 설치하여 8개 관련분야 발전 장려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지원: 전문유치자금으로 건물구매 지원, 위험 보상 등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상장전문자금으로 상장초기 자금문제 해결, 대출이자 보상, 전문보조금 지원 등
 - 첨단화·고품질화·고도신흥화 산업 육성: 과학기술전문자금을 설치하여 기업 R&D 활동을 지원하고, 빈하이신구과학기술상을 제정하여 개인 및 조직을 포상하며, 세금 혜택도 제공
 - 기업본부와 과학연구기관 입주 장려: 신규등록 기업본부, 기업의 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지정사무실 및 주택 사용 시 기본혜택 및 추가혜택 제공

- 행·재정 지원정책 실시: 입찰경매방식으로 양도(사용권)하고 세금공제방식으로 다시 기업에게 반환함으로써 토지임대료 절감, 수속~공사~생산~철수과정에서 단일기관에 의한 행정·자문·편의서비스 제공, 보육 및 거주혜택 제공, 재정 및 세금관련 업무를 기업유치부서가 일괄처리 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 축소 등

● 빈하이신구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및 한계

- 국가의 개발전략에 힘입어 대기업, 대형프로젝트 유치에 집중한 결과, 11·5 계획시기(2006~2010)에 세계 500대 기업 중 109개가 빈하이신구에 입주
- 최근 5년 간(2006~2010) 빈하이신구의 총생산액은 1,984억 위안에서 5,030억 위안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3%를 초과했고, 텐진시 총생산액의 50% 이상을 차지
 - 2차 및 3차산업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최근 항공우주, 전자정보, 장비제조, 바이오제약, 신재료, 신에너지 등 신흥산업이 점차 빈하이신구의 지주산업이 되고 있음
- 빈하이신구는 국내·외 기업유치, 신흥산업 육성 등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제3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장애요인도 상존
 - 3차산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장비·제조, 해양화학공업,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여전히 지주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신흥제조업의 기여도는 낮은 상태
 - 중국 동부연해 전역에 제조업이 분산되어 있어서 산업기능과 업종의 중복문제 발생
 - 외자기업이 제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 주로 국제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지화 수준이 비교적 낮고 기술확장도 제한적임
 - 외자기업이 대부분 경쟁력 있는 제품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현지대학이나 연구기관 간 상호교류와 협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혁신력을 갖춘 산업집적군 형성에 애로
 - 전반적으로 외자기업 투자가 축소되는 추세로 주강경제권과 장강경제권에 비해 후발주자인 빈하이신구 개발에 외자유치가 상대적으로 위축
 - 베이징과 텐진 간 오랫동안의 경쟁관계는 투자유치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경쟁 최소화를 위해 베이징은 금융, 문화, 학술, 기초과학 중심으로, 텐진은 제조업, 항만물류기지, 자원조달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협약까지 체결
 - 에너지소모량 증가와 환경문제 발생 등이 빈하이신구 개발에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
 - 관련업무가 행정적으로 분산되는 등 아직까지 개발업무 조정체계가 미흡

■ 중국 동해연해지역의 산업집적과 세계적 기업들과의 연계 및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환황해권 내 인접국들과의 산업적 역할분담이 변화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3국 간 또는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만금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에 빈하이신구 개발이 시사하는 바 있음

-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복합 형태의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이때 개별사업들이 산업으로, 산업들이 군집으로, 군집들이 단지로 성장함으로써 전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산업육성계획과 토지이용 및 공간배치계획과의 연계가 필요
-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유도를 위해서는 전 지역 산업발전을 선도할 만한 앵커기업 및 빅프로젝트의 초기 유치와 다양한 지원 등 공공에 의한 적극적인 선도 역할이 필요
- 국내 또는 초국경 지역들과의 협력 및 경쟁을 위해서는 주변지역들과의 산업기능 조정 및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우리만의 경쟁우위 업종을 발굴·선택하여 집중 개발할 필요

-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관점에서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
- 원스톱 및 단일기관에 의해 신속·정확하고 현장중심의 한 행정심사·처리, 자문, 편의 서비스 제공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 설립이 필요
-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정책, 유치업종 등에 있어서 융통성 있는 적용 등 유연한 대처 필요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흠 연구원 (031-380-0291, kimhum@krihs.re.kr)